

지방소멸 위기 강진, '푸소'에서 답 찾는다

강진군, 日 아지무마치 그린투어리즘연구회 방문 농촌 빈집 활용 등 지역활성화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

지난 4월 27일, 전남 강진군이 농촌 재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일본 큐슈 아지무마치(安心町) 그린투어리즘연구회를 방문했다.

이날 강진군 방문단은 그린투어리즘 연구회 미야타 세이이치 회장을 만나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빈집 활용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15년 아지무마치 그린투어리즘을 벤치마킹한 후 탄생한 '강진푸소(FU-SO)체험'의 발전 방향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야타 회장은 "한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찰단을 보내는 등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이를 푸소(FU-SO) 체험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로 개발한 지자체는 강진군이 유일하다"며, "국제적 차원의 체험학습 인프라를 구축해 한국을 넘어 세계인에게 강진의 정을 전달하며 농촌 관광을 주도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강진군이 운영하는 '푸소(FU-SO)체험'은 필링-업(Feeling-Up) 스트레스-오프(Stress-Off)의 줄임말로 기존 농촌체험이나 민박과는 달리 농가에서 주인과 하룻밤을 보내며 농·어촌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 실시한 이래 지금까지 5만 명 이상이 푸소체험으로 강진을 방문했으며 44억 원의 농가 직접 소득을 올리는 등 침체된 농촌을 살리는 인구소멸 위기 대응의 대표적인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민선8기 들어 체류형 농촌관광을 넘어, 주거지와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는 '푸소 시즌2'를 새롭게 추진 중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인구 유입의 새로운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농박 운영에 역사가 긴 일본에 비해 강진 푸소체험은 군민들의 열정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성공 반열에 올랐다"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푸소가 일본의



그린투어리즘을 증가하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촌관광프로그램이 되도록 푸소 운영자 역량강화와 체험 기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지역 살리기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큐슈 아지무마치도 그린투어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농박(농가민박)을 시작했다.

아지무마치는 흔한 온천도 없고 일상적인 시골의 풍경 외에는 특별한 볼거리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정성스럽게 차려낸 밥상과 포근하고 깨끗한 잠자리 제공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고령화와 인구절벽의 위기에 처한 농촌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진도군, 전남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 수상

진도군이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 분야는 지방세 징수와 체납액 징수실적, 지방세수 확충실적, 세정운영 등 32개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군은 최근 3년동안 최하위 성적에 머물렀으나 민선 8기에 들어 지방세수 증대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노력 끝에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어 시상금 5,400만원을 확보했다.

군은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맞춤형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된 재산 일체 조사 등 다양한 특수시책을 세정업무에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또 지방세 신고, 상담, 납부 등의 원스톱 처리로 한층 더 신속하고 편리한 세정서비스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친절한 세무 행정을 펼쳤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 확충은 물론 납세자 납부 편의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천성순 작품전시회 6월 13일까지 해남아트마루 기획초대전

천성순 작가는 마음의 동화 같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다. 천성순 작가가 고향 해남에서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

이번 전시회는 "천성순, 고향에서 열정을 꽃피우다."라는 주제로 작가와 늘 가까이 있는 가족에 대한 재발견, 반려동물 고양이와 주는 미묘한 편안함 그리고 반구상 느낌의 자연, 정물, 선과 면으로 구성해 본 추상작품 등 23점을 선보인다. 동화같은 순수함속에 뛰어난 색감과 구도가 뛰어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준다. 장소는 해남아트마루이며 기간은 4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다.

천성순 작가는 "싱그러운 계절에 학창시절 꿈과 추억이 깃든 고향 땅끝 해남에서 개인전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고 설렌다"며 "보는 이의 마음과 순수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고, 작품과 만나는 모든 인연들의 마음에 작은 행복이 선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기동취재본부

'정남진 물 과학관' 새단장 완료...5월 3일 개장

수열홍보관 설치...다양한 체험과 교육 콘텐츠 보강

정남진 물 과학관이 3개월 간의 새단장을 마치고 오는 5월 3일 재개장 한다.

장흥군은 물 과학관 내부에 수열홍보관을 새로 구성하고 최근까지 전체적인 리모델링 작업을 마무리 했다.

가정의 달 5월을 겨냥해 다양한 체험과 교

육 콘텐츠를 보강해 군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새롭게 문을 여는 물 과학관은 수열에너지와 수중 생물을 어린이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1층에는 자연친화 매립형 수조와 수열포

토존을 갖추고 있으며, 2층은 수열에너지 홍보관, 4D영상관, 수족관으로 꾸며져 있다.

수열에너지로 조성된 3층은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학습 이해 효과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휴게공간으로 마련된 4층에는 '물과학관 디지털카페'가 새롭게 단장을 마치고 운영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남진 물 과학관이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과학 놀이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며, "물 과학관에서 신나



는 체험을 즐기시고 토요일장과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이 '2023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에서 2년 연속 K-웰니스 브랜드 대상(해양치유)

양치유 분야)을 수상했다.

(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와 한국관광지원서비스협회 주최로 진행된 'K-웰니스 푸드&투어리즘 페어'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 aT센터에서 열리며, 전국 100여 개 지자체·기관, 2,500여 개 브랜드가 참가했다.

완도군은 2년 연속 해양치유 분야에서 K-웰니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해양치유 도시로 입지를 굳혀 갔다.

군은 지난 2018년부터 해양자원을 이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인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대한민국이 건강한 삶을 선도해 나가고, 다양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등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

완도 해양치유, K-웰니스 브랜드 2년 연속 대상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기반 시설 구축 등 해양치유 활성화 높이 평가받아

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양치유 공공시설로는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정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등이 건립됐으며,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는 5월 준공될 예정이다.

바닷물과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한 16종의 요법 시설을 갖춘 해양치유센터는 3~4개월 시범 운영 후 9월중 그랜드 오픈할 계획이다.

군은 페어에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완도 미역 추출물로 만든 머드팩과 다시마

추출물을 함유하여 혈행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겔을 증정하는 이벤트는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해양치유담당관은 "올해 해양치유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완도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오르게 된다"면서 "우리 완도가 해양치유 선도 지자체인 만큼 다양한 웰니스 상품 개발 등을 통해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